

## 청년농업인 찾은 농협, 현장 중심 지원 약속



▲농생명 특화 거대언어모델(LLM)

### 청년농 전담 창구 운영 체계 마련 등 디지털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추진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은 6일 충북 청주시 소재 청년농업인 농가를 찾아 유튜브 콘텐츠를 활용하고, 지역 청년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 소통에 나섰다. 이날 촬영에는 강호동 회장과

청년농업인 강수아, 개그맨 이수근, 아나운서 오상진이 함께했다. 출연진은 로메인 수확과 허브를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을 체험하고, 청년농업인의 영농 이야기와 농업의 가치, 농촌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촬영을 마친 뒤 강호동 회장은 인근 지역 청년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영농현장의 애로사항과 농협에 바라는 지원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성장을 위한 농협의 역할과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강호동 회장은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인 청년농업인들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협은 ‘청년농부사관학교’를 통해 2026년 83명의 청년농업인을 배출하는 등 2018년부터 총 804명의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며 예비 청년농의 안정적인 창업과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농협은 청년농업인의 창업부터 정착·성장·확장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범농협 지원 협의체 운영, 전담 창구 설치, 디지털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과 함께 재배 기술 컨설팅 및 금융 지원 등 분야별 맞춤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강태영 기자  
ktya0712@daum.net

## 농진원, 대기업과 함께 그린바이오 기업 키운다

### 그린바이오 기술 사업화 및 현장 실증 지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이석형, 이하 ‘농진원’)은 그린바이오 기업의 기술사업화와 현장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LG전자, ㈜하림과 협업을 유망기업 7개사를 선정했다.

이번 협업은 농진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가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대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산업 현장에 그린바이오 기업의 혁신 기술·제품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LG전자와 함께하는 그린바이오 신소재 기술 사업화 협력 프로그램(LGreen-Up)은 LG전자가 보유한 천연 항균 소재를 그린바이오 기업의 기술과 제품에 접목해 새로운 사업화 가능성을 찾는 프

로그램으로, 총 3개사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주식회사 텍셀은 LG전자의 소재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미세알 세정제를, 풋츠컴퍼니 주식회사는 항균 기능을 갖춘 원예생활용품을 개발한다.

주식회사 예코바이오는 식품 신선도 유지용 포장재 개발을 추진한다. LG전자는 선정기업에 천연 항균 소재와 관련 기술, 전문가 등을 제공해 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림과 추진하는 그린바이오 기술 실증 프로그램(BIO HARIMpact)은 ㈜하림의 실제 축산 현장과 그린바이오 기업의 기술을 연결하는 데 중점

을 두는 프로그램으로, 총 4개사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업인 유니아이는 축사 마이크로바이옴 활성화 시스템의 현장 적용을 추진하며, 주식회사 리신바이오는 박테리오파지를 활용한 방역 솔루션을 실증한다.

㈜솔로몬은 산란계 생산성 및 난각 품질 향상 기술을, ㈜제로나인 메트리얼은 LED를 활용한 스마트 방역·사육환경 개선 시스템을 각각 현장에 적용한다. ㈜하림은 선정기업이 기술과 제품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축산 현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농진원은 이번 협업을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대기업의 기술·현장·사업 경험과 그린바이오 기업의 혁신 기술을 지속해서 연결하는 상생 협력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한국농수산물-한국임업진흥원 청년 임업 창업 역량 강화 나서 산림창업부터 AI 활용, 가공·마케팅까지

국립한국농수산물대학교(총장 이주명)가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산림·조경 전공 학생들의 임업 창업 역량 강화에 나선다.

한농대는 10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산림·조경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청년 임업 창업 교육 2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예비 청년 임업인에게 창업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실무 역량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학기에 이

여 두 번째로 진행되며 총 4회에 걸쳐 열린다. 1·2회차는 한농대에서, 3·4회차는 대전에 있는 한국식품정보원에서 진행된다.

1회차에서는 임업 창업 노하우와 임업·창업 분야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2회차에서는 AI 도구 활용법과 AI를 활용한 맞춤형 정책사업 탐색 및 디자인 기획 등을 교육한다.

3·4회차에서는 1박 2일과정으로 임산물을 활용한 제품 기획과 가공·상품화, 마케팅

실습을 진행한다.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시장 진출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한국임업진흥원의 청년 임업인 육성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산업 정보부터 AI 기반 정보 탐색, 제품 개발과 마케팅까지 임업 창업과 경영 전반을 다룬다.

이주명 한농대 총장은 “탄소 중립 시대에 산림은 탄소흡수원 역할뿐 아니라 산림자원의 활용과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임업진흥원과 협력해 산림조경 전공 학생들의 현장 실무와 창업 역량을 높이고 전문 임업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times.com

## 농촌진흥청, ‘신흥조생’ 감귤 신품종 개발

### 10월 상·중순 수확 가능 기존 품종보다 1~2주 빨라

농촌진흥청이 10월 초부터 수확할 수 있는 극조생 감귤 신품종 ‘신흥조생’을 개발하고 농가 보급에 나선다.

농촌진흥청은 7월 제주 서귀포시 감귤연구센터에서 농업인과 감귤 관련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흥조생’ 현장 평가회를 연다고 밝혔다.

‘신흥조생’은 일본 도입 품종인 ‘유라조생’을 활용해 육성한 품종으로, 올해 1월 품종보호권을 출원했다. 열매 무게는 약 85g, 당도는 10.5브릭스, 산 함량은 0.8% 내외다.

노지에서는 10월 상·중순부터 수확할 수 있어 ‘유라조생’보다 숙기가 1~2주 빠르고 착색도 약 2주 빠른 것이 특징이다.

제주 3개 지역에서 실증 재배한 결과 당산비는 12도 ‘유라조

생’의 8.8보다 높았다. 나무 세력과 열매달림성도 우수해 수확량은 ‘유라조생’보다 45%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신흥조생’이 극조생 감귤의 출하 시기를 분산하고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유라조생’과 ‘유라실생’ 등 일본 도입 품종을 대체할 국산 품종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현장 평가회에서는 노지와 시설에서 재배한 ‘신흥조생’과 ‘유라조생’을

비교하며 열매 착색과 품질, 식미 등을 평가한다.

농촌진흥청은 평가회 의견을 반영해 재배기술을 보완한 뒤 2027년 묘목 생산을 거쳐 2028년부터 농가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또 품종 혼입을 막기 위해 ‘신흥조생’과 기존 극조생 품종을 구별할 수 있는 분자표지 2종을 개발하고 특허출원을 추진하고 있다.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신흥조생 유라조생 과실 비교 사진

세상을 풍요롭게, 마음껏,  
농업을 변화시키는 기업

생명에 뿌리다  
농업의 뿌리다

## 환경은 달라도 효과는 그대로!

# 플로빈

무처리구

「플로빈」처리구

**등록작물**  
감(단감 포함), 고추(단고추류 포함), 딸기, 마늘, 열린, 복숭아, 상추(양상추 포함), 수박(복수박 포함), 양파, 오이, 인삼, 참외, 파(쪽파 포함), 포도, 호박(단호박 포함)

**효과**  
감(단감 포함), 고추(단고추류 포함), 딸기, 마늘, 열린, 복숭아, 상추(양상추 포함), 수박(복수박 포함), 양파, 오이, 인삼, 참외, 파(쪽파 포함), 포도, 호박(단호박 포함)

## 흰가루병! 잿빛곰팡이병! 탄저병!

홈페이지 [www.30agro.co.kr](http://www.30agro.co.kr) | 한국농업 수호천군 한국삼공 | 고객센터전화 1599-3082

· 사용전에 표기내용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 표기내용 표시사항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어린이 손이 닿는 곳은 붙여두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 안전사용기준을 잘 지켜 우수농산물을 생산하십시오. · 농약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농약관리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